지역 소식통

고창군,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호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견학 프로그램에는 14개 읍면 주민과 학교 등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읍·면 등에서 2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견학을 통해 참가자들은 쓰레기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둘러보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신태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세대 '사랑의 밑반찬' 전달

신태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홀로세대에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신태인읍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65 세미만의 홀로 사는 세대들이 장애와 질병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쉽지 않음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정 심의회를 통해 5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년 째 홀로 생활하고 있는 조모씨는 "반찬 만들기가 어려워 식사시간이면 걱정이 많았는데 밑반찬을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형극 공연으로 성폭력 예방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가 인형극 공연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섰다.

관련해 성문화센터는 업무협약 기관인 '전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후원을 받아 모두 4회의 공연을 가졌다.

지난달 31일과 이에 앞선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공연된 인형극은 지역 내 5세~10세의 아동 800여명이 관람했다.

한편 성문화센터는 정읍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고창, 부안 등)까지 찾아가는 성교육과 성문화 체험관을 연중 운영,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와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모양성제' 성공개최 만전

축제발전방향 모색 사전컨설팅 개최

'고창군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의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이 열렸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고창모양성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모양성)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전컨설팅은지난 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교수 류인평)에서 주관해 컨설턴트, 대행사, 모양성보존회, 군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축제 개최 전 축제의 정체성, 프로그램 구성, 현장여건 등의 사전점검을 통해 축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축제개최를 돕기 위한 절차로 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는 강강술래 경연대회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확대 개최하고 답성놀이의 장점을 부각해 대표 프로그램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고창군민과 관광객이 진정으로 즐기는 축제로 한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의 행사시에 도출됐던 문제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면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고창만의 특징적인 부스 운영과 행사장 공간 배치, 모양성내 프로그램 운영방안, 축제 홍보 방안 등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편, 고창모양성제는 조선 단종 원년(1453년)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호남도민이 총화 축성한 고창읍성(모양성)의 축성정신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축제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유망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고창모양성제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운 축제로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고창모양성보존회와 함께 수도권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립박물관

15일부터 20일까지, '박물관 주간' 운영

분야별 프로그램 다채

정읍시립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박물관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박물관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분야별로 다채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먼저, 매일 100명씩 참여하는 만들기 무료 체험이 운영된다.

일정은 15일 천연비누, 16일 장승, 15일 에코백, 18일 전사 머그컵, 19일 압화 부채, 20일 가죽 동전지갑이다.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참여자 모두가 완성도 높은 체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15일에는 각국의 다양한 의상을 보고 입어 보는 체험과 '신기한 마술쇼'가, 18일에는 '불링불링 버블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레고 배드맨 무비, 아기배달부 스토크, 모아나, 마이펫의 이중생활) 하루 3회씩 4일 상영된다.

박물관은 "지원한 박물관에서 친구, 가족들과 신나는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물관 색칠 공부, 페이스 페인팅, 겨울에 받아보는 편지, 스탬프 찍기 등과 같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각양각색의 상설 체험 코너도 운영된다.

박물관은 "유물과 고전이라는 틀에 박힌 박물관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재미있고 흥미 넘치며, 가고 싶은 '정읍시립박물관'으로의 공간적 변모를 위해 특별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16일부터 '유망중소기업' 공모

고창군이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공모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고창군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 5인 이상,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최대한도 2억원, 1% 이차보전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제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지원도 받게 된다.

선정결과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의회 평가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중 서면통보 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서식은 고창군 홈페이지(http://gochang.go.kr)-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 560-2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선진영농 앞장선 김서진 · 오말례 부부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선진영농을 도입,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앞장서겠다"

김서진· 오말례 부부가 2일 농협중앙회본부 대강당에서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소감이다.

김서진· 오말례 부부는 24여 년 이상 수도작과, 축산 등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농군으로서 농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 자가 농과 임차농을 규모 화로 하였으나 수입개방으로 10여 년 전부터 축사 800평에 한우 240두를 사육하는 복합영농으로 부농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인만의 브랜드를 개발 한우 수취가격을 높이려고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5ha의 논에 동계작물로써 라이그라스, 하계작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생산된 볏짚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타 농가보다 모범을 보여 왔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영농후계자를 계승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후계자 육성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사료가격상승, 소비감소 등 한우가격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추·양파·대파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부농의 꿈을 이루고 있다.

또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부부는 영농과 사회활동의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후계자로 지역사회와 농촌을 지키는 농촌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부안 농협 김원철 조합장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위기다"며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상을 수상한 김서진, 오말례 부부처럼 우리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농민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농협도 선도적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여성문화관, 하반기 54개 과목 교육 운영

정읍지역 대표적인 사회문화교육기관인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문화관에 따르면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평생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여성문화관은 SNS 활용 기법과 코딩 교육 등 모두 54개 과목을 개설, 수강생(129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여성문화관에서 선착 순 방문 접수한다.

모집 정원의 65%에 미달되는 강좌는 운영되지 않는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15,000~75,000원이나 교육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과목에 한해 면제받는다.

초급·중급으로 나뉘는 과목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수강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